

뉴스 라운드업

- 미·이란 무력충돌 재개에 WTI +2.83% 급등,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다우 -0.70%·S&P500 -0.33%·나스닥 -0.12%)
- 미국 10 년물 금리 4.754%로 2025 년 1 월 이후 최고치, 독일·프랑스 장기금리도 15 년래 최고 — 9 월 추가 인상 베팅 강화
- 인도 4~6 월 GDP +7.8%(예상 +7.1%) 서프라이즈, 민간투자 급증이 견인
- VIX 14.93·미 하이일드 스프레드 260bp 로 안정권 유지 — 금리 급등에도 신용·변동성 시장은 무덤덤

미·이란 충돌 재개와 매파적 연준 기대가 국채금리를 밀어올렸지만 신용·변동성 시장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지난 주말 이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됐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라라크섬의 이란 발사대를 타격하자 이란이 즉각 보복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에너지 거점 카르그섬이 파괴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이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WTI 는 장중 3%대 급등 끝에 전장 대비 2.83% 오른 배럴당 85.76 달러로 마감했고,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뉴욕증시는 다우존스 -0.70%, S&P500 -0.33%, 나스닥 -0.12%로 하락 마감했다. 다만 8 월 한 달 기준으로는 세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해 월간 추세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도 스톡스 600 이 -0.62%로 동반 약세를 보였고, 두바이를 중심으로 걸프 증시도 위험회피 심리에 밀려 하락했다.

국채시장은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워시 연준 의장의 잭슨홀 매파적 발언 여진까지 겹치며 급격히 흔들렸다. 미국 10 년물 금리는 4.754%(+2.4bp)로 2025 년 1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독일·프랑스 장기금리도 15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바클레이즈가 연내 추가 인상을 전망하는 매파 진영에 새로 합류하는 등 월가의 9 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망은 갈수록 인상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며, 이는 시장이 반영 중인 9 월 회의의 인상 확률이 우세한 최근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에 대해 신뢰를 표하며 "그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해 정치적 개입 우려를 일단 진정시켰고, 베네통 재무장관은 보우트 예산관리국장과 재정건전화 패키지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금리 급등에도 정작 신용·변동성 지표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VIX 는 14.93 으로 3.5%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구간에 머물렀고, 미국 하이일드 스프레드는 오히려 260bp 로 소폭 축소됐다. 금값도 -0.15%로 안전자산 수요가 크게 불지 않았고, 달러인덱스는 매파적 금리 전망과 반대로 -0.25% 밀리는 등 자산별 반응이 엇갈렸다. 국채금리가 시사하는 긴축 재프라이징이 신용·변동성 시장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는 기존 판단과 부합하는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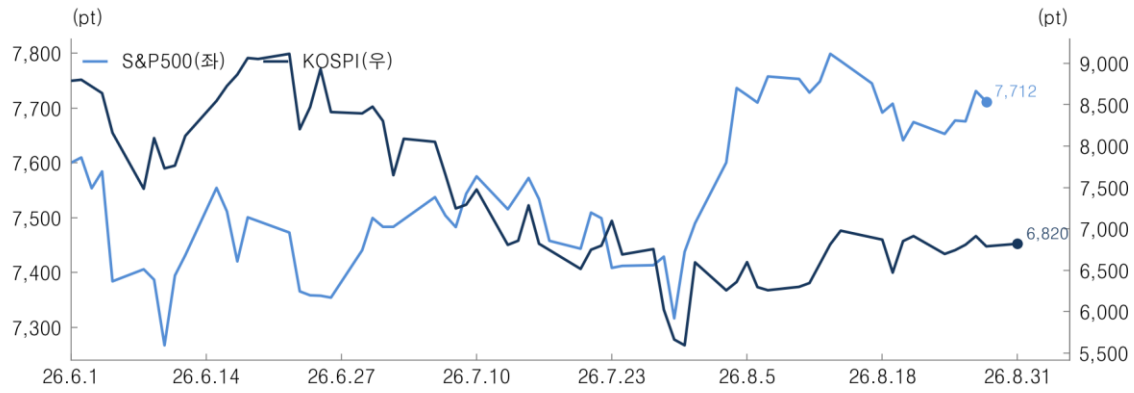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인도가 4~6 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8%를 기록해 로이터 설문 전망치 7.1%를 뚜렷이 웃돌았다. 민간투자가 전년 5.8%에서 12%에 가까운 증가율로 뛰어오르고 제조업이 9.2% 성장하며 성장을 견인했지만, 인도 국채시장은 유가 상승과 인도중앙은행(RBI)의 매파적 신호, 그리고 연준 긴축 기대가 겹치며 10 년물 금리가 이번 회계연도 들어 월간 기준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카타르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 차질 여파로 1 분기 GDP 가 전년 대비 7% 감소해 역대 경제가 이번 충돌의 실질적 타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코스피, 니케이, 항생, CSI300 등 아시아 주요 지수는 모두 전일(월요일) 오후 마감분으로, 간밤 미·이란 교전 재개와 유가 급등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에 따른 반응은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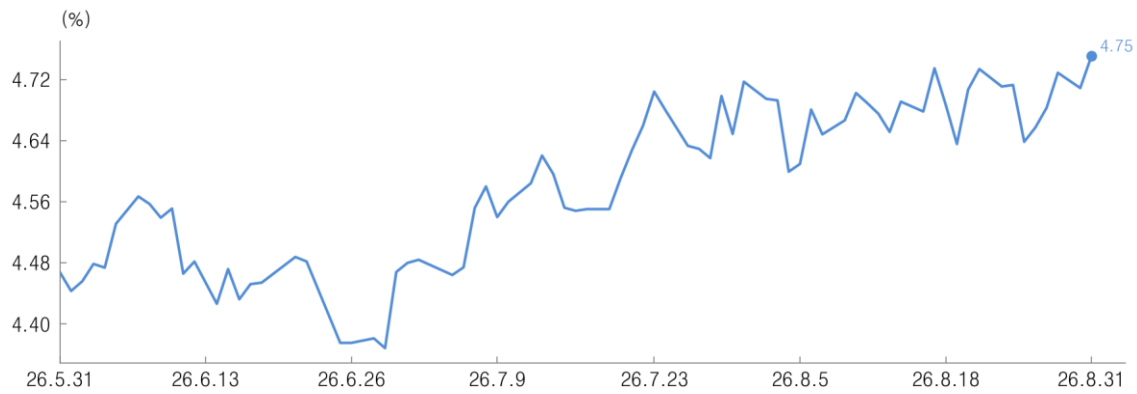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686.14	-0.33%	8/31 종가
	나스닥	26,370.88	-0.12%	8/31 종가
	STOXX 600	651.11	-0.62%	8/31 종가
	닛케이 225	66,311.71	-0.14%	8/31 종가
	CSI 300	4,625.09	+0.35%	8/31 종가
	KOSPI	6,820.02	+0.46%	8/31 종가
	항셍	25,566.99	-0.07%	8/31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42	-0.25%	8/31 종가
	달러/엔	159.76	+0.02%	9/1 종가
	유로/달러	1.16	-0.01%	9/1 종가
	달러/원	1,367.83	-0.57%	8/31 종가
	달러/위안	6.72	-0.09%	8/31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754%	+2.4bp	8/31 종가
	미국 2 년	4.346%	-1.4bp	8/31 종가
	일본 10 년	2.941%	+2.2bp	8/31 종가
	독일 10 년	3.323%	+3.1bp	8/31 종가
	한국 10 년	4.313%	+3.9bp	8/31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0bp	-3.0bp	8/28 종가
원자재	WTI	85.76	+2.83%	8/31 종가
	금	4,447.15	-0.15%	8/31 종가
	구리	6.69	+0.43%	8/31 종가
변동성	VIX	14.93	+3.54%	8/31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미국 뉴스 53 건 HIGH	• 미-이란 군사 충돌 재개,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유가 3% 이상 급등 ↳ 8/31(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 섬(Larak Island)의 이란 발사대 2 개 타격 →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 2 곳에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 전략해역 긴장 재개 ↳ Trump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란 에너지 허브 카르그 섬(Kharg Island) 언급하며 추가 타격 암시, 시장의 위험 인식 가중 ↳ 유가(WTI) 3% 이상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재확대, 유가 하락 기대가 있던 시장의 낙관 기조 차단 • Warsh 연준 의장 매파적 신호, 9 월 금리 인상 가능성 63.9%로 상향 ↳ 8/28(금) 잭슨홀(Jackson Hole)에서 Warsh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회귀하지 않으면 추가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신호로 해석 ↳ CME FedWatch 9 월 금리 인상 가능성 63.9%로 상향, Barclays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최근 금리 인상 시나리오로 선회하면서 월가(Wall Street) 내 매파 진영 확대 ↳ 연준이 지난 6 개월간 기준금리를 유지해온 가운데, Warsh 의 발언은 정책 기조 전환 신호로 평가되며 다음달 회의에 시장 초점 집중 • 금리 인상 베팅과 유가 급등으로 채권·주식·환율 동반 약세 ↳ 10 년물 국채 수익률 4.758%로 1 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전일 대비 +3.6bp), 독일·프랑스 장기채도 15 년 이상 최고 수준으로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인상 우려 확산 ↳ S&P 500 -0.33%, 다우 -0.70%, 나스닥 -0.12%, 유럽 STOXX 600 약 -0.6% 하락, 대형 통신·재량소비주 약세 주도하되 에너지업종과 반도체(엔비디아 등)는 부분 상승 ↳ 달러가 엔화 대비 160 엔 근처로 약세,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우려 언급 • Trump, Warsh 존경하되 저금리 입장 재강조 ↳ Trump 대통령이 8/31 Warsh 의장을 존경한다고 표명하고 그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금리 인상 신호를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 표시 ↳ 동시에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내야 한다'는 저금리 기조 재강조, 금리 인상과 저금리 정책 간 긴장 관계 노출 • Bessent-Vought, 재정 통합 패키지 협의
유럽 뉴스 27 건 HIGH	• 독일·프랑스 10 년물 수익률 15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 ↳ 유가 상승과 연준 의장 Warsh 의 인상 신호(인플레 지속 시)가 압력으로 작용 ↳ 독일 방위·인프라 지출 확대, 프랑스 예산 재편 논의 속 채권 공급 우려 가중 • 스위스 의회 UBS 자본 규제안 가결—CET1(핵심자본) 50%, AT1(추가자본) 50% 구성으로 정부 요구선 후퇴 ↳ AT1 발동 기준 약 11%, 돌파 시 배당·자사주 매입 중단 및 보너스 감액 ↳ 강화 AT1 요건으로 UBS 자금조달 비용 증가 예상, 최종 입법결정은 2027 년 • 독일 8 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YoY) +2.9%—에너지 급등에도 예상치(+3.1%) 하회 ↳ 에너지가격 +10.5%로 급등(이란 분쟁 배경, 7 월 +8.3%에서 상승)

권역	요약
	↳ 핵심물가 안정 유지로 광범위 물가 상승압력 제한 • 러시아 재무장관 G20 회의 참석—유럽 저항, 우크라이나 전쟁 중 정상화 불가 ↳ Anton Siluanov 러시아 재무장관, 미국 재무부 장관 Bessent 와 별도 회담 ↳ 독일 재무장관, 전쟁 계속되는 한 관계 정상화 불가 천명 • EU 항공안전청 페르시아만 공역 경고 축소, 전체 국가에서 해상 구역만으로 조정 ↳ 미-이란 교전 재개(7 월 말 이후 처음) 배경, 페르시아만 상공 위험도 계속 높음 ↳ 9 월 30 일까지 경고 유효 • 이탈리아 2050 년까지 인구 약 400 만 감소 전망(58.9 백만→55 백만) ↳ 2080 년까지 45.8 백만으로 추가 감소, 고령화 비중 상승으로 부양비 급증 ↳ 연금·복지 시스템 지속성 위협 • 아일랜드 8 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YoY) +3.4%—에너지 가격 4.3% 상승(3 월 이후 최고) ↳ 핵심물가(에너지·미가공식품 제외) 전년동월대비(YoY) +2.6% • 포르투갈 2 분기 GDP 전분기대비(QoQ) +0.8%, 전년동기대비(YoY) +2.5% 확정—순수출·민간소비 주도 ↳ 순수출이 성장에 0.7pp 기여 • 독일·프랑스 9 월 중 중국 무역 전략 로드맵 발표 예정—위안화 절상 중심 ↳ 1 월~7 월 누적 중국 무역 흑자 6,870 억 달러 감소 목표 ↳ 위안화 절상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 해소가 불충분하다는 전문가 평가
인도 뉴스 31 건 HIGH	• 4-6 월 GDP 7.8%로 예상 상회, 투자·제조업 주도 ↳ 로이터 설문 예상 7.1% 대비 0.7%p 상회했으나, 직전분기 8.6%보다는 0.8%p 하락한 수준 ↳ 민간투자 거의 12% 급성장(전년 5.8%), 제조업 9.2%, 금융서비스 12.1% 성장 견인 ↳ 광업·소비자서비스 약세에도 견조한 소비와 투자 호조가 전체 성장 지탱 • 10 년물 국채 수익률 사상 최고 6.95%, 긴축 기대 누적 ↳ 8 월 중 11bp 상승으로 회계연도 내 월간 최대 상승폭 기록, 6 월 8 일 이후 3 개월 만의 최고 경신 ↳ 유가 강세(브렌트유 \$90/배럴 상방), 인도중앙은행(RBI) 긴축 신호, 미국 연준 금리 인상 기대가 복합 작용 • 식품 인플레이와 강수 부족 이중 압박, 가계 소비 위험 고조 ↳ 정부 월간 경제보고서: 식품 인플레이로 인한 가계 처분가능소득 잠식이 비식품 재량 지출까지 제약하는 메커니즘 경고 ↳ 8 월 강수량이 역사적 평년값 대비 16% 미달, 9 월도 91% 이하의 부족 강수량 예상 ↳ 엘니뇨가 2026 년 말 피크로 예상되며, 숨·대두·옥수수·맥주보리 등 여름곡 수확 위험 증가 • 인도중앙은행, 외환 선물 포지션 사상 최고 \$1,367 억으로 확대 ↳ 7 월 기준 6 월 대비 \$330 억 증가, 5 월 이전 최고 \$1,066 억을 크게 경신 ↳ 비거주자 외화 예금 스킴으로 해외 달러 유입 유도 중, 국제수지 안정화와 루피 약세 완화에 기여 • 외국인 투자자, 8 월 인도 주식에 \$31 억 순매수로 23 개월 최고 ↳ 2024 년 9 월 이후 최대 월간 매수, 2 개월 연속 순매수 전환

권역	요약
	↳ 기업 실적 전망 개선과 인도중앙은행의 루피 지지 정책이 매수를 유인했으나, 올해 누적 - \$246 억의 사상 최대 순매도 기록은 유지 • ONGC, 심해 유전 개발에 \$105.1 억 규모 5 년 투자 계획 ↳ 1 조 루피 규모로 2031 년 3 월까지 87 개의 심해·초심해 유정 시추 예정 ↳ 미개발 심해 유전 자원화를 위한 기술 진전에 따른 사업 확대 • Modi, Putin 회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촉구 ↳ 키리吉斯 수도 비슈켄에서의 정상 회담에서 '인류를 위해 전쟁이 끝나야 한다'며 '모든 평화 노력을 지지한다' 표명 • 국제중재법원, 인도의 파키스탄 물분배 조약 준수 명령 ↳ 헤이그 국제중재법원이 카슈미르 수력발전소 공사 계약과 1965 년 물분배 조약 준수를 명령 ↳ 인도는 2025 년 4 월 카슈미르 관광지 테러(사망 26 명) 후 공격자 일부가 파키스탄 관련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조약을 일방 중단한 바 있음
브라질 뉴스 12 건 HIGH	• 브라질 7 월 국가채무 GDP 대비 82.5%로 상승, 이자지출이 재정 취약성 심화 ↳ 기초재정수지(이자비용 제외)는 14 억 헤알의 소폭 흑자였으나, 높은 이자지출로 인해 종합재정수지는 적자 상태 지속 ↳ 순채무도 GDP 대비 69.1%로 상승, 로이터 설문조사 예상(68.8%)을 상회 ↳ 라틴아메리카 최대 경제의 주요 재정 취약요소로 평가되는 상환 비용의 가파른 상승 추세가 투자자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려 대상 • 재무장관, 일부 사회프로그램의 의무 지출 요건 완화로 재정 운영 유연성 강화 추진 ↳ 현금이전 사업인 볼사 파밀리아 같은 프로그램을 정부의 '흐름제어' 대상으로 전환하면, 수혜자 심사와 프로그램 감시 유인이 높아져 효율성 개선 가능하다는 입장 • 부통령, 지출 억제와 경제 성장 병행으로 채무비율 개선 가능하다는 입장 제시 ↳ 정부는 향후 수년간 기초재정수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정부의 2027 년 GDP 성장을 전망 2.46%, 지난달 예상(2.5%)에서 소폭 하향 조정 • 로이터 설문조사, 브라질 2 분기 경제성장이 전 분기 대비 둔화한 것으로 추정 • 중동 군사 긴장 재점화로 라틴아메리카 주식·통화 혼조, 유가·글로벌 채권 수익률 상승 ↳ MSCI 라틴아메리카 통화지수 +0.2%, 주식지수 +0.4~0.7%, 미국 달러 약세가 단기 지지 요인이거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가 지역 자산 펀더멘탈을 압박
EM 기타 뉴스 20 건 HIGH	• 남아프리카 7 월 무역수지 201.4 억 랜드 — 컨센서스 140 억 랜드 대비 44% 초과달성 ↳ 연초 누적(1 월~7 월) 무역수지 1,309 억 랜드로 전년 동기(1,006 억 랜드) 대비 30% 개선 • 카타르 1 분기 GDP -7% —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생산 급감 ↳ 명목 GDP 1,708 억 리얄(\$469 억)로 전년 동기(1,837 억 리얄) 대비 축소 ↳ 세계 주요 LNG 수출국의 생산 차질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 지속 • 러시아 중앙은행 2027 년 고위험 시나리오 — GDP -3~4%, 인플레이션 11~13%, 유가 배럴당 \$35 ↳ 기준 시나리오(baseline)는 연료 부족 완화로 인플레이션 상승 제한 전망 ↳ 9 월 11 일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 예상(로이터 설문), 루블 12 개월 후 91.51 로 약화(현재 약 86

권역	요약
	수준, -6%) ↳ 은행 시스템 구조적 유동성 부족 2027 년 말 71 조 루블로 확대(+54%) • 세네갈 국제통화기금(IMF) 협상 '실질적 진전' — 내일 미션 종료 ↳ 8 월 19 일 개시 미션이 내일(9 월 2 일) 종료 예정 ↳ 채무 과소보고 사건 이후 18 억 달러 규모 신규 차입 협상 진행 중 •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우회 경로 병목 심화 — 다뉴브 강 항구 선박 80 척 대기 ↳ 흑해 항구 봉쇄로 과거 곡물 수출의 90%를 담당했던 주요 항구 마비, 다뉴브 강 경유 우크라이나 내륙 항구(이즈마일·레니) 우회 중 ↳ 철도 운송사 월 50 만 톤 곡물 처리 능력 있으나, 현재 통관까지 수주일 소요 • 체코 2027 년 예산 적자 3,890 억 크로네 — NATO 방위비 2% 처음 달성(25% 증가) ↳ 2026 년 계획(3,100 억 크로네) 대비 790 억 크로네 증가 ↳ 국방 강화, 도로·철도·의료 투자 및 공무원 급여 인상 반영 • 인도네시아 2027 년 경유 보조금 1,900 만 kL — 2% 증액, LPG 는 동결 ↳ 2026 년 실수요(2,027 만 kL) 가 당초 계획(1,864 만 kL) 을 초과하자 2027 년 배정 상향 조정 • 터키 국부펀드, 전기차 업체 TOGG 신규 주주 진입 ↳ 베스텔·아나톨루의 결합 46% 지분을 국부펀드에 매각, 터크셀 지분 비중 확대 예상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5 건	• 호주 주택가격 8 월 월간 -0.9%, 5 개월 연속 하락 심화 ↳ 7 월 하향 수정(-1.2%) 보다 낙폭 개선했으나, 시드니(-1.4%), 멜버른(-1.1%) 등 주요 도시에서 여전히 약세 기록 ↳ 피크 대비 -3.6%, 1 년 전 대비 +2.7% 수준 — 거의 모든 수도권 도시가 월간 하락에 동참 ↳ 추가 금리 인상 리스크 시사 → 향후 주택시장 조정 강화 우려 • 미국, G20 회의에서 성장 기조 강조 — 글로벌 채무 우려 완화 시도 ↳ 美 재무 당국, 성장이 높아진 글로벌 채무 문제의 최적 해법임을 강조, 지난 월요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2 일 회의에서 발언 ↳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쇼크, 중국의 거대 무역흑자 관련 긴장, 투자 기조 변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 ↳ 美, G20 지지 확보해 이란 고립 외교 추진 • 뉴질랜드 중앙은행, 수요일 25 베이스포인트 인상 확정 공산이나 시장 기대와 괴리 위험 ↳ 시장이 연말까지 약 56 베이스포인트 추가 인상을 가격에 반영 → 남은 3 개 회의 중 2 회 이상 인상 필요를 시사하는 수준 ↳ 최근 경제 지표 약세로 상방 서프라이즈 가능성 제한적 — 결정보다는 성명서·분기별 전망이 뉴질랜드 달러(NZD) 움직임을 좌우할 전망 • 금 가격 -0.1% 하락, 8 월 월간 수익률은 1 월 이후 최고 ↳ 현물금(XAU=) \$4,448.19/온스로 약보합 → 중동 공격으로 인플레이 우려 상승했으나, 연준의 매패적 입장으로 9 월 인상 베팅 60% 도달한 것이 약세 견인 ↳ 은·백금·팔라듐도 8 월 월간 최고 수익률 기록 — 향후 미국 고용 지표가 금리 경로 결정의 핵심 변수

권역	요약
중국 뉴스 2 건	• 대만, 중국의 공중·해상 통제 강화와 군사 위협 증가를 경고 ↳ 대만의 연간 중국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면서 대만 주변 공중·해상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 ↳ 중국이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에서의 교훈을 자신의 군사 전술에 반영하며 고도화 ↳ 대만 통일 시 '섬멸 타격'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는 등 무력 사용 의지 재확인 • 중국 부동산 선판매 규제 개편으로 개발사 주가 하락, 현금흐름 악화 ↳ 주택담보대출을 프로젝트 완공 후 제공하는 새 규칙 도입 → 기존 완공 전 판매(선판매) 시스템 변경으로 개발사 현금 수입 축소 ↳ 개인 주택담보대출 최대 기간을 30 년에서 40 년으로 연장하나, 개발사의 단기 현금흐름 악화 불가피 ↳ 자금난 심화로 업계 통합·재편 가속화 예상
일본 뉴스 2 건	• 베센트 미 재무장관, 일본의 엔화 강세 정책 추진 시사 ↳ 지난 31 일 CNBC 인터뷰에서 '시장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엔화 강세로 귀결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 ↳ 금리 인상 여부 질문에 '시장이 이미 반영했다'는 답변 ↳ 발언 직후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
남미 기타 뉴스 7 건	• 콜롬비아 8 월 물가상승 가속,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 ↳ 로이터 애널리스트 21 명 설문 결과, 8 월 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0.26% 예상, 연간 인플레이션을 6.10%로 중앙은행 목표 상회 ↳ 2026 년 말 인플레이션 전망치 6.76%로 상향 조정(이전 6.66%), 지난달 10 일 지진의 경제적 파급 및 주택·공과금·식료품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 배경 • 콜롬비아, 예산 조정을 위한 지역정부채 스왑 9 월부터 추진 ↳ 9 월·10 월·11 월 각 월말에 고정금리채·물가연동채·단기채 등 다양한 지역정부채 스왑 진행 예정 ↳ 금융부 공공신용 담당자와의 회의 이후 시장조성자 여럿이 로이터에 전달, 증가된 차입 필요에 대응하는 조치 • 칠레 7 월 제조업 생산 전년비 -4.9%
프론티어 뉴스 7 건	• 나이지리아 2 분기 GDP 4.43% 성장으로 1 분기(3.89%) 대비 가속 ↳ 석유·비석유 부문 모두 성장 가속 ↳ 2025 년 3.87%, 2024 년 3.38% 대비 추세 개선 중, 다만 2027 년 목표 7% 도달을 위해서는 2.5%포인트 이상 상향 필요 • 스리랑카 8 월 인플레이션 8%로 상승, 식품가격 급등 ↳ 7 월 7.3%에서 8%로 상승(0.7%포인트), 식품인플레 6.3%→8.5%로 급등한 가운데 비식품은 7.8%→7.7%로 소폭 안정 ↳ 엘니뇨 관련 가뭄으로 주요 농업지역 생산 타격 및 글로벌 밀가격 상승이 복합 작용 • 케냐 8 월 인플레이션 6.5%→6.6%로 완만한 상승 ↳ 월간 인플레는 0.2%→0.4%로 확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